

올 겨울도 겨울 감성 담은 따스한 시즌송 온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겨울 감성을 담은 시즌송 역시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해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에는 다양한 시즌송이

대중의 귀를 녹이고 있다. 올해에도 걸그룹, 보이그룹을 비롯해 소속사 별로 의기투합한 스페셜 음원이 공개가 예고되며 가요계를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트와이스는 오는 12일 스페셜 앨범 '더 이어 오브 'YES''(The Year of 'YES')와 타이틀곡 '올해 제일 잘한 일'을 공개한다. '올해 제일 잘한 일'은 트와이스

트와이스·치즈·레이디스 코드 등 앨범 발표

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R&B 장르로 포근한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게다가 뮤직비디오 역시 몽골 실원에서 촬영해 겨울 감성을 담아냈다. 트와이스는 지난해에도 리패키지 앨범 '메리 앤 해피'(Merry & Happy) 및 '하트셰이커'(Heart Shaker)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프로듀서 드레스(DRESS), 심어송 라이터 겸 프로듀서 브라더수(BraderSu) 그리고 감성 보컬 치즈(CHEEZE)도 오는 12일 겨울 스페셜 싱글 '오디너리 크리스마스'(ORDINARY CHRISTMAS)를 통해 시즌송 대열에 합류한다.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역시 오는 12일 데뷔 후 처음으로 겨울 시즌송 '더 라스트 홀리데이'(THE LAST HOLIDAY)를 발표한다. 레이디스 코드가 3인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016년 10월 발매한 앨범 '스트레인저'(STRANG3R) 이후 2년 2개월만이다.

남성듀오 캔은 지난 2일 캐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발표했다. 배기성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 안상태가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보이그룹 VAV도 지난 7일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지털 싱글 '소 인 러브'(So In Love)를 공개했다.

올해는 가요 기획사별로 소속가수가 대거 참여하는 겨울 시즌송이 부쩍 늘어났다.

'스타쉽'을 비롯해 FNC 엔터테인먼트, 판타지오 뮤직, WM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시즌송 대열의 이름을 올렸다.

2011년부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해온 윈터 캐럴 프로젝트 '스타쉽 플래닛'(STARSHIP PLANET)도 이번 겨울 돌아온다. '스타쉽 플래닛'은 스타쉽 아티스트가 음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합동곡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로 5일 공개된 신곡 '별서

크리스마스'(Christmas Time)에는 소속 아티스트 10팀이 참여했다.

판타지오뮤직은 올해 1월부터 선보인 감성 주파수 프로젝트 'FM2018'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헬로비너스, 아스트로, 위키미키가 모두 함께하는 겨울 시즌 송을 선택했다. WM 엔터테인먼트도 소속 가수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 등 총 17인과 함께 '헬로우 !WM'(HELLO! WM)를 10일 발표한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FNC엔터테인먼트의 '잇츠 크리스마스'(It's Christmas)에는 가수 뿐만 아니라 배우·예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속 아티스트가 참여했고 음원 수익금 전액은 제3세계 학교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건축 지원에 기부한다.

가요계 관계자는 "계절감을 가지고 나오는 시즌송은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자체로 팬들에게 선물과 같은 의미가 크다. 올해는 많은 기획사가 윈터송을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소속사마다 가진 정체성이나 색을 보여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 2주 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출연자 순위도 '정상'

2018년 12월 10일에 발표된 TV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가 2주 연속 1위이다. 동시에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도 박보검과 송혜교가 2주 연속 1위와 2위를 지켰다.

2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 변동 없이 JTBC 'SKY캐슬',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리고 SBS '황후의 품격'이 차지했다.

그러나 화제성 순위는 같지만 1위 '남자친구'와 2, 3, 4위 작품들의 화제성 격차가 2~5%대로 좁혀지면

서 앞으로 네 편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MBC 신규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가 신하균의 연기와 19금 방송이 이슈가 되면서 5위에 올랐고 그 뒤로 SBS '사의찬미',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tvN의 '계룡산너진', MBC의 '붉은 달 푸른 해', OCN '신의퀴즈 : 리부트'가 차례로 6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현빈(알함브라궁전의 추억)이 3위, 신하균(나쁜 남자) 4위, 이종석(사의 찬

미) 5위, 장나라(황후의 품격) 6위, 신혜선(사의 찬미) 7위, 최진혁(황후의 품격) 8위, 박신혜(알함브라궁전의 추억) 9위, 김유정(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10위 순이다.

본 조사는 TV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방송예정인 드라마 30편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온라인 기사, 블로그, 커뮤니티, SNS, 동영상 반응을 분석하여 12월 10일에 발표한 결과이다.



'스윙키즈', 전 세계 동시기 개봉 확정



한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23개국에서 선관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관객들의 높은 관심과 폭발적 반응을 입증하고 있다.

'스윙키즈'는 최근 미국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아메리칸필름마켓(AFM)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스크리닝을 기점으로 열렬한 러브콜을 받았다. '스윙키즈'의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NEW의 글로벌관계사인부 콘텐츠판다는 "만박을 이룬 스크리닝 현장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영화 상영 도중에도 관객 구배 제안 메시지가 쇄도할 정도였다"며 "'스윙키즈'는 단상단의 국제, 언어, 문화를 초월해 히로아틱을 담은 춤이 해외 바이어들을 사로잡은 요소로 보인다"라고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스윙키즈'를 구매한 북미 배급사 Well Go USA 관계자는 "음악과 춤으로 하여금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눈부시도록 멋진 아 영화를 모든 관객이 즐기라 믿는다", "홍콩과 마카오 배급사 Bravos Pictures 관계자는 "지금껏 보온 한국영화 중 가장 에너지 넘치도록 신선한 영화로, 단연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영화에 대한 민족감을 전했다.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감각적 연출,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과 재미를 전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강형철 감독의 4년만의 신작으로 에너지 넘치는 젊은 배우들의 신선한 시너지, 포수용소 내 탭댄스팀이라는 색다른 소재까지 더해져 폭발적인 호평을 이끌고 있는 영화 '스윙키즈'는 12월 19일 개봉 예정기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父母 매력 끌어낸 '아모르파티', 확실히 달랐다



다. 자식들이 당황할 정도로 예측 불가였던 부모의 행동은 곧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됐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tvN 새 예능프로그램 '싱글 황혼들의 청춘 찾기-아모르파티(이하 '아모르파

티')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가는 스타들을 홀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홀어머니, 홀아버지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배우 이정아의 아버지, 작가 허지웅의 어머니, 안무가 배운정의 어머니, 가수 나르샤의 어머니, 댄서 허위동의 아버지가 이번 여행에 함께했다.

'미운 우리 새끼'가 자녀들의 일상을 어머니들이 지켜보는 포맷이라면, '아모르파티'는 부모들이 함께 여행을 떠난 모습을 자녀들이 VCR로 지켜본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어머니들의 매력 드러나긴 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MC 강호동이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 자녀들이 아닌 그 부모들이 주인공. "미운 새끼" 어머니들의 거침없는 입담, 예상할 수 없는 에티켓도 같은 것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던 제작진은 그 약

속을 100% 지켰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장부터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모습을 드러내며 동시에 한숨쉬던 목소리가 나오니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부모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에 격한 반응을 했다. 이정은이 김연자 '아모르파티'를 계속해서 흥얼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배운정은 이는 것이 많아 'TM'를 넣어놓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녀가 예상 가능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조용한 성격이었던 딸이 어머니가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황후에도 나이와 혈액형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표적.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가 아닌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난 셈이었다. 그런 모

습에 이칭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도 있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허지웅은 "저도 우리 엄마만 알지 김현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아모르파티' 속 자녀들이 연예인이라는 것 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같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 아빠를 보는 자녀들의 소감이 시청자들에게도 납득하게 다가올 수밖에. 또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또래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싱글'들의 모습은 미소를 자아내기도 충분했다.

'아모르파티'는 프로그램 형식상 '미운 우리 새끼'를 떠올리도록 만든다. 그렇기에 차별점을 두는 것이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 포인트를 제작진은 제대로 짚었다.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반응이 몽글몽글과 웃음을 동시에 안겼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음력 11월 5일)



▶**띠** 1, 3, 5, 9월생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지금 힘든 고비를 넘기는 길임을 알아. 남에게 준 것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듯. 무슨 일이든 쉽게 해결하려다가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 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근신할 것.



▶**띠** 2, 4, 5, 11월생은 생각이 깊고, 겸손한 면은 있으나 지나치면 완고하고 답답한 인상을 주기 쉽다.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오늘은 주위 사람들과 호탕하게 어울려 보라. 기분이 새로워질 것이다. L, S, H 성씨는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날이다.



▶**띠** L, S, T 성씨는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대하고 관용을 베풀 때 서로 당신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있다. 매사 자기주장이 지나쳐 서로 평행선을 걷는 것임을 알아. 2, 7, 8, 11월생 사업가는 용기만 불황을 이기는 길이다. 업자와 말다툼 주의.



▶**띠** 2, 8, 9, 11월생은 성격에 맞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정 의로운 일에 순대면 큰 성과를 얻을 수. L, S, T 성씨 방송, 언론계 등 종사자는 다른 업종 종사자와 대인 관계에서 의외의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날. 단, 원수이피는 상극이니 멀리하라.



▶**띠** 2, 4, 6, 9월생은 자기 재주만 믿다가 빚더미에 올라 설 수 있으니 주의하라. 재산 증식도 운이 따를 때 적당히 해야지 절제하지 않으면 화를 몰고 오는 원인이 된다. L, O, T 성씨 사업가는 무리하게 추진할 때가 아니다.



▶**띠** 1, 3, 6, 11월생 직장인은 평소 눈치 보이면 상사에게 자신 있게 접근하면 의외로 뜻은 전할 수 있는 날이다. 특히 S, T, T 성씨는 상사가 내 맘을 알아주는 격. O, B, P 성씨로 사람을 많이 대하거나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이에게 길일.



▶**띠** 직장인 2, 4, 8, 10월생은 뜻밖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날. 민첩하게 처리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겠다. G, C, T 성씨는 마음이 즐겁고 활발한 날이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라.



▶**띠**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라. 1, 3, 7, 10월생 직장인은 우연히 알게 된 정보라도 누설하면 큰 곤란을 겪을 듯. 매사 기밀을 유지해야 할 때다. G, O, B 성씨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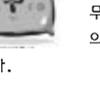
▶**띠** B, O, T 성씨는 하는 일이 힘겹지만 내 뜻을 분명히 하면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때를 기다리라. 1, 3, 6, 10월생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배려해야 할 시기임을 염두에 두라. 세심하게 아내에게 신경 써 주는 것이 좋다.



▶**띠** 본인이 생각한 것만 옳다고 착각하지 말라. 1, 3, 7, 10월생은 스스로 잔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몸을 추스르는 것이 좋겠다. B, S, H 성씨는 겁만 두려워할 뿐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격.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날.



▶**띠** 1, 3, 5, 8월생은 성급한 성격을 자제하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무슨 일을 하든 느긋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기를 것. G, O, B 성씨는 자기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유혹하는 자를 경계함이 좋을 듯.



▶**띠** 2, 4, 7, 10월생은 자신의 속마음을 지나치게 내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무심한 태도를 취할 것. L, S, O 성씨는 작은 실수가 큰 화의 경보임을 알아. 순조로운 듯 보여서 방심하면 일이 꼬이게 쉽다.